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판 도식질문지(조성호, 2001)의 타당화의 일환으로 2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에 따라 방어유형과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지도 예측/굴종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정도가 높고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적응적 방어유형을, 반면에 타인과 고립/단절되거나 예측/굴종되어 있고 충동/분노가 많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배려/희생적이지도 않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냉담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며 스스로를 결함이 없고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며 내적인 충동/분노가 적은 등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온화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사교적 및 오만/타산적 대인관계 특성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들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 분석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실패/무능 및 고립/단절)은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을 상당히 높은 판별율로 성공적으로 판별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사용하여 방어유형과 대인관계 양상을 적절하고도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대인관계 유형

조성호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성 호,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 340-3278 E-mail : chosho@www.cuk.ac.kr

뿌리 치료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들이 표출하는 심리적 증상이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해는 각 개인의 마음을 구성하는 뿌리 혹은 바탕(즉, 성격)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표면의 문제는 뿌리 문제의 반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저 혹은 핵심 신념의 변화와 수정을 궁극적 치료 목표로 삼는 인지치료는 뿌리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eck & Freeman, 1990). 인지치료에서 각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도식이므로, 부적응을 유발하는 병인적 도식(pathogenic schema)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뿌리 치료 이론으로서의 인지치료 이론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인지치료 이론에서 도식이 지니는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도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제까지 별달리 없었다는 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도식-중심 치료(schema-focused therapy)라는 새로운 인지치료 이론(Young, 1990)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적응 도식들을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개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Schema Questionnaire(Young, 1990, 1991)라 불리는 이 측정 도구는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16가지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 질문지는 Schmidt, Joiner, Young와 Telch(1995) 그리고 Lee, Taylor와 Dunn(1999)의 연구 등을 통해 임상적 타당성과 경험적 유용성을 지닌 측정 도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조성호(2001)는 이 질문지를 우리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애초에 Young(1990)이 제시하였던 부적응 도식들을 거의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신병리를 초래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실제로 존재하며, 병인적 도식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문화보편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부적응 도식을 지남으로 인해 초래되리라 예상되는 심리적 결과들이 우리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방어(defense)란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날 때, 그러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자아가 동원하는 갖가지 정신적 대처를 일컫는다(Freud, 1926). 방어가 목적하는 바는 정신내·외적으로 초래되는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신내·외적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불안이 인간의 보편적 정신 현상이듯이, 이러한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성 또한 인간의 보편적 정신 과정이다. 그러나 방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어의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단순히 부인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이들은 결점을 승화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 갈등을 행동화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이들은 갈등에 유머로 대처한다. 이와 같은 대처(또는 방어) 방식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적용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일련의 방어 연구자들은 개별 방어기제들이 몇 가지 군으로 위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예: Gill, 1963; Glover, 1956; Haan, 1963; Vaillant, 1971). 즉, 개별 방어기제들은 미성숙한(또는 병리적인) 유형에서부터 성숙한(또는 건강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성숙성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Vaillant(1975, 1976)는 방어기제를 자기애적 유형, 미성숙한 유형, 신경증적 유형, 성숙한 유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방어유형이 개인들의 정신병리와 체계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기보고식 방어 측정도구인 Defense Style Questionnaire (Bond, Gardner, Christian, & Sigal, 1983)를 사용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 또한 성숙성 위계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방어유형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예: 조성호, 1999; Andrews, Pollock, & Stewart, 1989; Bond et al., 1983; Bond, Perry, Gautier, Goldenberg, Oppenheimer, & Simand, 1989; Vaillant, Bond, & Vaillant, 1986).

왜 개인들이 사용하는 방어의 유형이 서로 차이가 나며, 이러한 방어유형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방어가 마음의 내적 정신 과정이라면, 그러한 정신 과정은 마음의 기본 바탕에서부터 연유하리라 여겨진다. 즉, 개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적해 놓은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이 응축되고 체계화되어 마음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고, 그러한 바탕으로부터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즉, 방어)이 유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인들이 사용하는 방어 방식의 성숙성(또는 병리)은 그 개인의 마음 바탕의 성숙성(또는 병리)을 반영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인지치료 이론에서 마음 또는 성격의 기본 구성 단위는 도식이므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 도식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방어의 유형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 가지 목적은 개인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부적응 도식들이 과연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마음의 바탕은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의 선구자적인 Sullivan(1953)에 따르면, 각 개인들은 생애 초기의 대인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체계(self-system)를 발달시켜나가며, 이후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은 그러한 자기-체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진다. 이렇게 보자면 대인관계의 병리는 바로 자기-체계의 병리이다.

Kiesler, Van Denvurg, Sikes-Nova, Larus와 Goldston(1990)은 이같은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들은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면담 장면을 피험자(대학생 및 임상훈련 중인 대학원생)들에게 평정하게 한 결과, 성격장애의 유형별로 대인관계 특성이 다르게 평정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가지는 대인관계의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성격 또는 자기-체계의 어떤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각 개인의 대인관계상의 특징들이 부적응 도식들로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어떤 부적응 도식들이 어떤 대인관계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기본 바탕으로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도식 질문지가 임상적 타당성과 유용성을 갖춘 도구임을 밝힐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도구가 보다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서울·수도권 소

계 대학생 225명(남 69명, 여 15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66세(표준편차 3.89), 연령 범위는 18~45세였다.

도 구

한국판 도식 질문지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조성호, 2001)에서 구해진 16개의 요인(부적용 도식)들을 사용하였다. 16개의 도식들은 실패/무능, 정서지지 결여, 절대기준/완벽, 비분리, 예속/굴종, 불신, 내성취약, 배려/희생, 결합, 고립/단절, 의존, 상실우려, 파국, 충동/분노, 자기우월, 및 몰락 등이다. 이 16개 도식들은 각기 4~2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전적으로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평균 .88(범위: .75~.95)이었다.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이 질문지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 등(1983)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으로서,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성호, 1999). 응답자들은 각 문항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7점 척도(1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일치한다)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방어기제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질문지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미성숙, 적응적, 자기억제적, 및 갈등회피적 방어유형 등의

4개 요인들이 얻어졌으며,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평균 .74(범위: .64~.82)이었다. 이 4개의 방어유형들간의 상관 분석과 각 방어유형들이 자존감, 불안, 정신병적 및 신경증적 경향성, 대처방식 등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방어유형들은 크게 2개의 방어유형군(적용적 방어유형 vs. 부적용적 방어유형)으로 묶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적용적 방어유형은 한 개의 요인(적용적 방어유형)으로 구성되며, 부적용적 방어유형은 세 개의 요인(미성숙, 자기억제적, 및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으로 구성된다.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이 척도는 개인들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특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Wiggins, Trapnell와 Phillips(1988)가 개발한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에 기초한 것으로서, 지배(dominance)와 양육(nurturance)을 두 개의 기본 차원으로 하는 대인관계 원형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직교하는 지배와 양육의 두 축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도록 개발된 이 척도는 64개의 대인관계 특성 기술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형용사들은 이 두 축에서 이탈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8분원(octants)에 소속되어진다. 8개의 분원은 각기 8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각기 별도의 하위 척도를 구성한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형용사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8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8점: 확실히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대인관계 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최지영(1998)은 544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위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 α)와 반분 신뢰도를 구했는데, 각기 평균 .79(.65~.86)와 .79(.61~.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지영(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16개 부적응 도식과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에서 나온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적응적 방어유형과 부적응적 방어유형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평균 점수를 기초로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적응적 방어집단')과 적응적 방어유형을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부적응적 방어집단')을 구분하고, 이 두 집단에 대해 16개 부적응 도식을 사용하여 판별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이 판별함수 분석에서 두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했던 도식들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대인관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해진 각 요인들의 대인관계상의 특징을 토대로 요인 명칭을 부여하였고, 요인들간의 상관과 요인별 신뢰도를 구하였다. 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 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16개 요인과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4개 요인(대인관계 유형)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각각의 대인관계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의 부적응 도식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16개 부적응 도식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평균(표준편차)과 서로간의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적응적 방어유형과 부적응적 방어유형간의 상관은 .09로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의 부적응 도식들은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부적응적 방어유

표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평균과 적응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과의 상관

부적응 도식	평균(SD)	방어유형	
		적응적	부적응적
실패/무능	47.78(14.03)	-.24***	.46***
정서지지 결여	27.42(9.45)	-.16*	.43***
절대기준/완벽	44.64(11.93)	.33***	.11
비분리	25.44(7.09)	-.15*	.26***
예속/굴종	31.96(7.63)	-.16*	.40***
불신	31.82(7.50)	-.05	.42***
내성취약	32.91(7.96)	-.15*	.49***
배려/회생	34.20(7.78)	.42***	.07
결함	23.03(8.47)	-.16*	.49***
고립/단절	18.72(6.93)	-.21**	.52***
의존	16.85(4.97)	-.19**	.33***
상실우려	20.15(5.84)	-.14*	.47***
파국	11.12(4.22)	-.12	.35***
충동/분노	15.69(3.98)	.04	.46***
자기우월	16.37(4.58)	.36***	.13*
몰락	9.68(3.42)	-.13*	.26***
전체도식	407.77(72.82)	-.07	.57***
적응적 방어유형	14.92(2.81)		.09
부적응적 방어유형	42.02(6.89)		

주. * $p < .05$, ** $p < .01$, *** $p < .001$.

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및 자기우월의 세 도식들인데, 이들은 다른 도식들과는 상반되게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부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유의미하지 않거나(절대기준/완벽 및 배려/희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다른 도식들과는 달리 이 세 도식들은 부적응적 방어유형과는 무관한 동시에 적응적 방어유형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적응적 방어유형과 부적응적 방어유형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2 참조). 적응적 방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배려/희생, 자기우월, 예속/굴종, 내성취약 등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8.6%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부적응 도식 중 배려/희생, 자기우월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정적 부호(+)를 가지는 반면, 예속/굴종, 내성취약은 부적 부호(-)를 가져 적응적 방어유형에 대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려/희생과 자기우월의 도식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반면에 예속/굴종과 내성취약의 도식 특성이 더 적어질수록 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

표 2. 적응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방어유형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적응적	배려/희생	.447	.176	.176	47.645	.000
	자기우월	.382	.288	.112	34.781	.000
	예속/굴종	-.208	.360	.073	25.131	.000
	내성취약	-.188	.386	.036	9.184	.003
부적응적	고립/단절	.252	.271	.271	82.937	.000
	내성취약	.235	.336	.065	21.873	.000
	충동/분노	.110	.372	.035	12.491	.000
	예속/굴종	.056	.385	.013	4.654	.032

표 3. 방어집단 분류에 따른 피험자 수

		부적응적 방어유형		계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적응적 방어유형	높은 집단	65	53 ¹⁾	118
	낮은 집단	47 ²⁾	60	107
계		112	113	225

주. 1) 적응적 방어집단, 2) 부적응적 방어집단.

귀 분석에서는 고립/단절, 내성취약, 충동/분노, 예속/굴종 등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부적응 도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이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방어유형과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평균 점수(각기 14.92 및 42.02)를 기초로 방어유형을 4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이렇게 분류된 4 집단 중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을 '적응적 방어집단', 적응적 방어유형을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을 '부적응적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집단의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 점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적응적 방어집단과 부적응적 방어집단이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어집단에 따라 적응적 방어유형($F_{(1,98)} = 200.74, p < .001$)과 부적응적 방어유형 점수($F_{(1,98)} = 137.91, p < .001$)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적응적 방어집단과 부적응적 방어집단을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구분된 적응적 방어집단과 부적응적 방어집단을 집단 변인으로 하고, 16개의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하였고, 판별함수의 독립변인 선정 기준으로는 Wilks' Lamda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구해진 정준 판별함수, 판별함수를 사용한 집단 판별 결과, 및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 계수를 표 5, 6, 및 7에

표 4.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의 방어유형별 점수 평균(SD)

	사례수	방어유형	
		적응적	부적응적
적응적 방어집단	53	17.29(1.66)	36.64(5.03)
부적응적 방어집단	47	12.89(1.42)	47.11(3.70)

표 5. 정준 판별함수

함수	고유치	정준상관계수	Wilks' Lamda	χ^2	df	p값
1	.717	.646	.582	52.441	2	.000

표 6. 집단 판별 결과

실제 집단	사례수	예언된 집단	
		적응적 방어집단	부적응적 방어집단
적응적 방어집단	53	46(86.8%)	7(13.2%)
부적응적 방어집단	47	11(23.4%)	36(76.7%)

표 7.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 계수

변인	계수
실패/무능	.501
고립/단절	.648

표 8. 적응 및 부적응 방어집단의 실패/무능과 고립/단절 점수 평균(SD)

	실패/무능	고립/단절
적응적 방어집단	39.47(11.02)	14.96(4.30)
부적응적 방어집단	55.40(11.90)	23.68(7.05)

제시하였다. 적응적 방어집단과 부적응적 방어집단을 판별하는데 기여하는 판별변인들은 실패/무능과 고립/단절 등 2개의 부적응 도식이었으며, 정준 상관계수는 .65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2개의 판별변인을 사용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의 정확 판별율은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을 의미있게 판별하는데 기여한 2개의 도식, 즉 실패/무능과 고립/단절 도식의 점수가 각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두 집단은 실패/무능($F_{(1,98)} = 48.34, p < .001$)과 고립/단절($F_{(1,98)} = 57.16, p < .001$)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실패/무능과 고립/단절 점수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이 대인관계 면에서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에 대해 주성분 분석(PCA)에 의한 요인추출과 varimax에 의한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모두 14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scree 검사와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4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부하량이 절대값 기준으로 .30 이상인 문항들만을 선별한 결과, 각기 16개, 12개, 10개, 및 5개의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은 각기 전체 변량의 25.04%, 13.64%, 5.87%, 및 4.87%를 설명하여, 전체적으로는 49.42%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명칭과 요인별 소속 문항 내용을 요인부하량과 더불어 표 9에 제시하였고, 요인별 소속문항의 원형 모형 상에서의 위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9에서 각 요인에 대해 부적(-)으로 부하된 문항들은 그림 1에서 문항 번호 밑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각 요인에 부적(-)으로 부하된 문항들에 대한 해석은 그 문항들이 각기 원 척도의 원형 모형 상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문항들을 대인관계 원형 모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의 분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행해졌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요인 1과 부적(-)으로 부하된 4번 문항은 원래는 원 척도의 원형 모형에서 '내향/철수적 대인관계'에 속했는데, 원형 모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반대 편에 속하는 분원은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이므로, 요인 1과 부적 부하를 가지는 4번 문항은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각 요인에 대해 정적(+)으로 부하되는 문항들은 그 문항들이 대인관계 원형 모형의 어느 분원에 속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나온 4가지 대인관계 유형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4가지 유형의 대인관계 점수의 평균과 각 유형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와 더불어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요인 명칭과 요인별 문항 내용, 및 요인 부하량

요인 명칭	문항 내용	부하량	문항 내용	부하량
1. 외향/사교적 대인관계	4. 명랑하지 않다	-.816	20. 사람을 멀리한다	-.629
	28. 비사교적이다	-.813	60. 내성적이다	-.610
	32. 외향적이다	.792	36. 인간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580
	48. 사교적이다	.779	52. 재치없다	-.551
	8. 명랑하다	.758	53. 무력하다	-.520
	56. 쾌활하다	.744	24. 친근감을 준다	.396
	12. 불임성이 없다	-.683		
2. 온화한 대인관계	23. 마음이 따뜻하다	.746	61. 순하다	.587
	63. 친절하다	.713	47. 인정 많다	.558
	7. 상냥하다	.710	44. 불친절하다	-.516
	16. 다정하다	.657	55. 동정심 있다	.511
	31. 마음이 부드럽다	.652	15. 사려깊다	.427
	62. 순수하다	.590	6. 다툼을 피한다	.409
3. 오만/타산적 대인관계	26. 교활하다	.879	42. 음흉하다	.682
	50. 간사하다	.843	43. 잔인하다	.649
	10. 비열하다	.755	30. 교활하지 않다	-.642
	2. 간교하다	.731	34. 건방지다	.437
	27. 냉혹하다	.712	58. 계산적이다	.434
4. 냉담한 대인관계	19. 동정심이 없다	.727	51. 냉정하다	.568
	11. 무정하다	.697	35. 마음이 차갑다	.550
	3. 인정이 없다	.662		

표 10. 4가지 대인관계 유형의 평균(SD)과 상관 및 내적 합치도

변인	평균(SD)	외향/사교	온화	오만/타산	냉담
외향/사교적 대인관계	73.57(14.53)	.93 ¹⁾			
온화한 대인관계	68.07(10.07)	.51**	.90		
오만/타산적 대인관계	30.65(10.65)	-.20*	-.44**	.90	
냉담한 대인관계	15.04(5.67)	-.48**	-.59**	.58**	.84

주. 1) 대각선상에 표기된 수치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임.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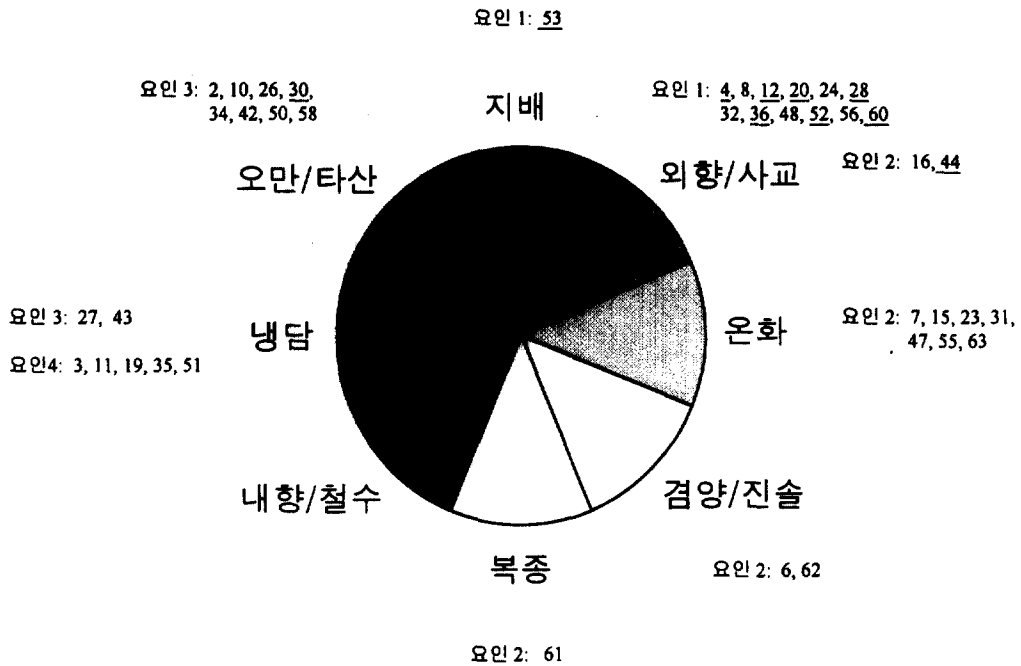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의 요인별 소속문항 및 원형 모형 상에서의 위치

표 10을 보면, 그림 2의 지배-복종의 수직 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반원에 소속된 대인관계 유형들 끼리는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 온화한 대인관계간에는 .51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와 냉담한 대인관계간에는 .58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서로 다른 반원에 속하는 대인관계 유형들간에는 모두 부적의 상관이 있었는데,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 오만/타산적 및 냉담한 대인관계간에는 각기 -.20과 -.48의 부적 상관이 있었고, 온화한 대인관계와 오만/타산적 및 냉담한 대인관계간에는 각기 -.44와 -.59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지배-복종의 수직 축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반원에 속하는 대인관계 유형들간의 역상관의 크기는 서로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부적용 도식과 대인관계 유형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부적용 도식과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4가지 유형의 대인관계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을 보면, 비분리는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충동/분노, 자기우월, 몰락의 경우는 상관이 정적 혹은 부적용으로 유의미하긴 했으나 그 크기가 모두 절대값 기준으로 .20을 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적용 도식들 중 절대기준/완벽과 배려/희생은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던 반면, 다른 부적용 도식들의 경우는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역상관의 관계가 있었다.

온화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비분리, 예속/굴종, 자기우월, 몰락 등의 부적응 도식들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의존과 충동/분노의 경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 크기가 절대값 기준으로 .20을 넘지는 못하였다. 나머지 부적응 도식들 중 절대기준/완벽과 배려/희생은 온화한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던 반면, 다른 부적응 도식들의 경우는 온화한 대인관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상관의 관계가 있었다.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절대기준/완벽과 예속/굴종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배려/희생과 의존의 경우는 자기 유의미한 부적 및 정적 상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 크기가 절대값 기준으로 .20을 넘지는 못하였다. 나머지 부적응 도식들은 모두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냉담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절대기준/완벽, 비분리, 예속/굴종, 의존, 자기우월 등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충동/분노와 몰락의 경우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 크기가 .20을 넘지는 못하였다. 배려/희생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음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적응 도식들은 모두 냉담한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의 대인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주요 부적응 도식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개의 대인관계 유형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고립/단절,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예속/굴

종, 비분리, 자기우월 등 6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52.2%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의 부적응 도식 중 고립/단절과 예속/굴종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적 부호(-)를 가진 반면, 나머지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비분리, 자기우월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반면에 고립/단절과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대인관계의 외향/사교적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화한 대인관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배려/희생, 정서지지 결여, 충동/분노, 자기우월, 예속/굴종, 결합 등 6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43.0%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의 부적응 도식 중 정서지지 결여, 충동/분노, 결합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적 부호(-)를 가진 반면, 나머지 부적응 도식들은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온화한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지 결여, 충동/분노, 결합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배려/희생, 자기우월,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온화한 대인관계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결합, 자기우월, 배려/희생, 불신, 의존, 내성취약 등 6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2.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의 부적응 도식 중 배려/희생과 의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적 부호(-)를 가진 반면, 나머지 부적응 도식들은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려/희생과 의존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결합, 자기우월, 불신, 내성취약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대인관계의 오

만/타산적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냉담한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정서 지지 결여, 배려/회생, 불신, 의존 등 4개의 부정적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0.9%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부정적 도식 중 배려/회생과 의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정 부호(-)를 가진 반면, 나머지 부정적 도식들은 정적 부호(+)를 가져 배려/회생과 의존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정서지지 결여와 불신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냉담한 대인관계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부정적 도식들이 과연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각 개인의 대인관계상의 특징들이 부정적 도식들로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판 도식 질문지(조성호, 2001)의 임상적 타당성과 경험적 유용성에 대한 부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과 초기 부정적 도식간의 상관 분석에서 대부분의 부정적 도식들은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닌 반면, 부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절대기준/완벽, 배려/회생, 및 자기우월의 세 가지 도식들인데, 이들은 다른 도식들과는 상반되게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적응적 방어유형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2001)의 한국판 도식 질문지에 대한 상위 요인분석(higher-order factor analysis)에서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 도식은 팽창된 자기(inflated self)라는 상위 요인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 상위 요인은 결함보다는 우월을, 실패보다는 높은 성취 기준을 내세우고 지향함으로써 내면적 취약성을 자기애적으로 방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가지 도식들이 내적 자기(inner self)나 자기-타인 관계(self-other relationship)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상위 요인(즉, vulnerable self)에 소속된 나머지 13개의 도식들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적응적 방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의 부정적 도식들을 예언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에서 4개의 도식들이 적응적 방어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려/회생과 자기우월의 도식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예속/굴종과 내성취약의 도식 특성이 더 적어질수록 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고립/단절, 내성취약, 충동/분노, 예속/굴종 등의 4개의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배려/회생적이되 예속/굴종되어 있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정도가 높고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응적으로 반응하며, 반면에 타인과 고립/단절되거나 예속/굴종되어 있고 충동/분노가 많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사람들이 부적응적으로 반응한다

는 결과는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에 대한 우리의 임상적 직관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집단에 대한 판별함수 분석에서는 16개의 부적응 도식들 중 실패/무능과 고립/단절의 두 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81.8%라는 높은 판별율로 두 집단을 성공적으로 판별해낸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결과 역시 우울을 포함한 신경증적 문제의 본질을 분석한 여러 이론가들의 시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Beck(1983)은 우울을 성취 관련 우울과 대인관계 관련 우울로 구분한 바 있다. 성취나 실패나 문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이나 고립/단절이나 문제는 인간의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차원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외향/사교적 대인관계, 온화한 대인관계, 오만/타산적 대인관계, 및 냉담한 대인관계 등의 네 가지 유형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각의 대인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주요 부적응 도식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향/사교적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비분리, 자기우월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반면에 고립/단절과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대인관계의 외향/사교적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타산적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배려/희생과 의존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결함, 자기우월, 불신, 내성취약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대인관계의 오만/타산적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담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배려/희생과 의존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정서지 지 결여와 불신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냉담한 대인관계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화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정서지 지 결여, 충동/분노, 결함의 도식 특성이 더 적을수록,

반면에 배려/희생, 자기우월,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이 더 많을수록 온화한 대인관계의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특성과 관련한 이같은 결과 역시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배려/희생적이지 않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대인관계는 기본적으로 냉담한 성질을 띠 것이고,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며 스스로를 결함이 없고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며 내적인 충동/분노가 적은 등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유지하는 대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성질을 지닐 것이란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포함된 16가지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은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설명하고 변별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상의 특징들을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임상적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지지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의 과정과 대인관계 양상이 마음의 기본 바탕인 도식에 의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방어와 대인관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심리적 결과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방어 및 대인관계 양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여러 유형의 심리적 장애를 가진 임상 집단(특히, 성격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심리적 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뿌리(즉,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적응 도식) 문제의 반영일 것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조성호 (1999).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최지영 (1998). 상담자 반응과 내담자 대인관계 특성이 내담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rews, G., Pollock, C., & Stewart, G. (1989). The determination of defense style by questionnair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455-460.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E. Barn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84).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Bond, M., Perry, J. C., Gautier, M., Goldenberg, M., Oppenheimer, J., & Simand, J. (1989). Validating the self-report of defense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2), 101-112.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0). London: Hogarth Press.
- Gill, M. M. (1963). Topography and systems in psychoanalytic theory.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0.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lover, E. (1956). *On the early development of min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an, N. (1963). Proposed model of ego functioning: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in relation to IQ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 77, 1-23.
- Kiesler, D. J., Van Denburg, T. F., Sikes-Nova, V. E., Larus, J. P., & Goldston, C. S. (1990). Interpersonal behavior profiles of eight cases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4), 440-453.
- Lee, C. W., Taylor, G., & Dunn, J. (1999). Factor structure of the Schema Questionnaire in a large 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4), 441-451.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3), 295-32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Vaillant, G. E. (1975).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III: Empirical dimensions of

- ment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420-426.
- Vaillant, G. E. (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to adult adjust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535-545.
-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786-794.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517-530.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 원고접수일: 2001. 9. 27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3
게재결정일: 2001. 12. 4

Early Maladaptive Schemas, Defense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defense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se constructs were administered to 225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 that the sixt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re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each individual's defensive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other words, the results show that the specific types of maladaptive schemas each individual has developed are possibly one of the central determinants of the adaptive utility of defensive processes and the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is impli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problems of living are, at least in part, problems of deeply-rooted maladaptive schema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s, defense style, interpersonal relationship